

중국의 대중남미 차관 제공 급증

- 미국의 대표적 중남미 연구기관인 ‘미주간대화(Inter-American Dialogue)’의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 중남미 차관 제공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.
- 대중남미 차관 규모는 2008년 10억 달러 미만 수준이었으나 2009년 180억 달러, 2010년에는 370억 달러로 급증하였음.

표. 2005 ~ '11년 중국의 대중남미 국가들의 차관 제공 규모 및 내역¹⁾

(단위: 백만 달러)

	세계은행	미주개발은행	중국	중국 차관 제공 내역
베네수엘라	-	-	38,500	인프라, 광산, 위성, 주택
브라질	3,445	3,000	11,230	유전·광산 개발
멕시코	8,021	2,200	1,000	통신 시설
아르헨티나	-	1,200	10,000	철도 설치
에콰도르	-	-	5,683	인프라, 에너지, 전기
바하마스	-	-	2,450	인프라, 리조트 건설
총계	11,466	6,400	68,863	

주: 차관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인 국가들만 포함.

자료: The New Banks in Town: Chinese Finance in Latin America(2012).

- 이는 자원 확보와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중국의 기대와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요구가 일치했기 때문임.
- 중국은 유망산유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네수엘라, 브라질, 에콰도르 등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석유자원(Loans-for-Oil)²⁾을 확보하고 있음.
- 또한 차관제공을 무기로 중국은 최근 중남미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함.
- 국가 신용도가 낮은 좌파 성향 국가들의 경우 국제금융기구나 서방은행에서 요구하는 정책개혁 및 투명성 조건에 대한 부담이 없어 높은 금리적용에도 불구하고 중국 차관을 선호함.
- 최근 차관제공 확대, 무역 및 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중국과 중남미 간의 경제관계는 다방면에서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나 일부 남미국가들에서는 최근 양자 간 지나친

1) 중국 차관 제공 규모는 ‘Inter-American Dialogue’의 추정치로, 역내 국가들의 각 프로젝트별 중국 차관제공액을 역추적한 금액임.

2) 'Loans-for-Oil'이란 자원부국에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담보로 석유/가스를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함. 현재 중국은 베네수엘라, 브라질, 에콰도르와 체결한 상태임.

관계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.

- 중국의 상업적 이해에 바탕을 둔 밀실험상은 일부국의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부정 부패 야기
- 중국의 저가 수입품 범람은 중남미 제조업 피해화 유발, 역내 관련 업계의 불만 초래.
- 아르헨티나는 중국 측 리오네그로 주 32만 헥타르 농경지 임대 제의 보류, 브라질은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조치를 취함.

〈출처: *Financial Times*, *The Inter-American Dialogue* 보고서 등〉

(이시은 연구원)